



KIA타이거즈 양현종이 지난 10월23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삼성라이온즈와 2024 신한 SOL뱅크 KBO 한국시리즈 2차전에 선발 등판해 역투하고 있다. KIA타이거즈 제공

21세기 세 번의 우승 모두 함께한 '유일한 주인공'

'V12' KIA타이거즈 2024년 결산 <14>끝> 투수 양현종

“2009년도, 2017년도, 지금도 저는 마운드 위에 있습니다.”

KIA타이거즈에 '리빙 레전드'라는 표현을 붙일 수 있는 선수는 단 한 명뿐이다. 그 주인공은 '대투수' 양현종. 1982년 프로야구 출범 이후 아홉 차례 우승컵을 들어올린 해태타이거즈에서 KIA타이거즈로 새롭게 출발한 뒤 세 차례 영광의 순간을 모두 함께한 이다.

양현종은 올해 정규시즌 29경기에 선발 등판해 11승 5패와 평균자책점 4.10을 기록했다. 월 크로우와 제임스 네일, 이의리, 윤영철 등 개각 로테이션에 발탁됐던 다섯 명 중 유일하게 완주에 성공했다.

양현종이 마운드의 중심을 잡아준 덕분에 KIA의 투수진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다. 이의리와 윤영철이 부상으로 이탈한 상황에서도 김건국과 김사윤, 임기영이 임시 선발로 나섰고 황동하와 김도현은 로테이션의 한 축을 책임질 수 있는 자원으로 발돋움했다.

올해도 이어진 대기록 행진은 양현종의 꾸준함을 대변한다. 양현종은 4월7일 광주 삼성전에서 개인 통산 1만 타자를 상대하는 금자탑을 쌓았고, 4월25일 고척 키움전에서는 개인 통산 170번째 승리를 완성했다.

이어 5월25일 광주 두산전에서 개인 통산 2400이

정규시즌 29경기서 11승 5패
올해 리그 최다 세 차례 완투
한국시리즈 2차전 승리 발판
“모든 우승 경험 자부심 있다”

닝 투구를 달성했고, 6월6일 광주 롯데전에서는 개인 통산 2000번째 탈삼진을 잡아냈다. 7월4일 대구 삼성전에서 개인 통산 500번째 등판을 소화했고, 7월10일 잠실 LG전에서는 개인 통산 400번째 선발 등판과 11시즌 연속 100이닝 투구를 동시에 달성했다.

대기록 행진은 멈추지 않았다. 양현종은 8월21일 광주 롯데전에서 10시즌 연속 세 자릿수 탈삼진을 기록하는 동시에 KBO 리그 통산 최다 탈삼진 기록(종전 송진우 2048개)을 경신했다.

또 정규시즌 마지막 등판이었던 9월25일 광주 롯데전에서는 개인 통산 2500이닝 소화와 함께 KBO 리그 최초 10시즌 연속 170이닝 투구의 위업을 이루며 피날레를 장식했다.

특히 양현종은 올해 리그 최다인 세 차례 완투를 소화하며 36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체력을 과시했다.

이 중 한차례는 5회말 강우 콜드로 종료되긴 했으나 올해 KBO리그에서 두 차례 이상 9이닝 완투를

소화한 선수는 전무했다.

한국시리즈에서도 양현종의 존재감이 빛났다. 정규시즌과 한국시리즈 MVP를 싹쓸이했던 2017년 만큼의 위력은 아니었지만 마운드 위에서나 더그아웃에서나 양현종은 팀을 이끌어줄 수 있는 리더였다.

양현종은 한국시리즈 2차전에 선발 등판해 5.1이닝 2실점(1자책)으로 호투하며 승리 투수가 됐다. 이를 발판 삼은 KIA는 1차전과 2차전을 모두 가져오며 우승 확률 90%를 확보했다.

3승 1패로 앞선 5차전에도 선발로 나선 양현종은 2.2이닝 5실점으로 주춤하며 조기 강판됐다. 하지만 더그아웃에서 후배들에게 힘을 실었고 양현종의 뒤를 이은 김도현의 호투에 이어 박도규와 장현식, 이준영, 전상현, 정해영까지 무실점을 이어가며 극적인 역전승으로 우승에 마침표를 찍었다.

양현종은 우승을 확정 지은 뒤 “우승은 항상 좋은 것 같다. 저는 KIA에서만 세 번을 경험했는데 너무 뿌듯하고 자부심도 있다”며 “올해는 무조건 우승을 할 거라는 자신감이 있었다. 저를 포함한 고참들도 항상 후배들에게 마음 편하게 하라고 얘기했는데 긴장하지 않고 제 기량을 발휘해 준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중간 투수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했다. 리드를 지키거나 타선이 동점을 만들 때까지 버텼다. 역전했을 때도 지켜줬다”며 “주먹을 많이 못 받지만 정말 노력했다. 칭찬받아야 마땅한 선수들”이라고 공을 돌렸다.

한규빈 기자 gyubin.han@jnilbo.com

KBO, 체크 스윙도 비디오 판독한다

퓨처스리그 일부 구장 시범 도입
로봇 심판 스트라이크 존 하향 조정
피치 클락 관련 세부 규정도 확정

로봇 심판 운영으로 스트라이크-볼 판정 불만을 최소화한 KBO 리그가 새로운 논란거리가 된 체크 스윙에 대해 비디오 판독 도입을 준비한다.

5일 한국야구위원회(KBO)에 따르면 지난 3일 10개 구단 단장이 속한 실행위원회에서 체크 스윙 비디오 판독 퓨처스리그 시범 도입과 자동 투구 판정 시스템(ABS) 스트라이크존 하향 조정, 2025 KBO 리그 피치 클락 정식 도입 세부 규정, 타자 주자 주로 범위 확대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가장 큰 변화는 체크 스윙에 대한 비디오 판독 도입이다. KBO는 현장의 지도자들과 선수들 사이에서 체크 스윙의 비디오 판독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내년 퓨처스리그 일부 구장에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KBO는 관련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 의견 수렴과 테스트를 진행해왔다. 지난 8월부터 일부 구장에 체크 스윙 판독 카메라를 설치해 시범 운영해왔고 이를 통해 확보한 영상으로 활용 적절성을 검토했다.

또한 시즌 중 미국과 일본 등 해외 사례를 면밀히 검토해 11월에는 미국 애리조나 교육 리그에서 시범 운영 중인 체크 스윙 챌린지를 조사하기 위해 심판 위원과 담당 직원이 현장에 파견돼 분석을 실시했다.

ABS 스트라이크존은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올해 타자 신장 비례 상단 56.35%와 하단 27.64%에서 모두 0.6%를 하향 조정해 상단 55.75%, 하단 27.04%를 적용한다.

KBO는 선수단 설문조사 등을 통해 의견을 청취했고 상단 스트라이크존 조정이 필요하다는 다수의 의견을 검토했다. 이에 따라 존 크기 변화 없이 상단과 하단이 모두 아래로 이동하는 형태를 선택했다.

상단과 하단의 판정 변화는 올해 전체 투구 판정 중 약 1.2% 비율이다. 내년 적용되는 하단 27.04% 비율은 미국 마이너 리그에서 시범 운영 중인 ABS 존 하단 비율과도 동일하다.

내년부터 정식 도입되는 피치 클락의 세부 규정도 확정됐다.

타석 간 간격은 33초이며 투수의 투구 간격은 주자가 없는 경우 20초, 주자가 있는 경우 25초다. 타석 당 타자의 타임 횟수는 2회까지 허용되며 투수판 이탈 제한은 전략 활용과 경기 흐름 등을 고려해 두지 않기로 했다.

이닝 교대 시간과 투수 교체 시간도 현장 의견에 따라 일부 조정됐다. 이닝 교대 시간은 2분에서 2분10초로 늘렸고, 이닝 중 투수 교체 시간은 2분20초에서 2분10초로 단축됐다.

스피릿 규정과 관련해 타자 주자의 주도로 넓어졌다. 홈에서 1루 베이스 사이에 그려진 스피릿 라인 안으로 뛰어 야 했던 규칙을 1루 페어 지역 내의 홈 부분까지 달릴 수 있도록 확대하고, KBO 리그 모든 구장의 1루 파울 라인 너비를 통일한다.

한규빈 기자



예능 '최강력비' 제작발표회

'광주 연고' OK 맨 맨 럭비단 이용운(왼쪽부터)을 비롯해 현대글로벌비스 정연식, 한국전력공사 나관영, 포스코이앤씨 오지명, 고려대학교 김원주, 연세대학교 서우현이 5일 서울 용산구 CGV 용산아이파크몰에서 열린 넷플릭스 '최강력비: 죽거나 승리하거나' 제작발표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최강력비: 죽거나 승리하거나'는 승리의 영광을 위해 온 몸을 던지며 필사의 전진을 이어가는 럭비 선수들의 진짜 승부를 보여주는 스포츠 서바이벌 예능으로 오는 10일 공개된다.

뉴스

한국 여자 핸드볼, 아시아선수권 우승 도전 '순항'

카자흐스탄과 2차전서 30-20 완승
2전 전승... 오늘 중과 A조 최종전

아시아여자핸드볼선수권대회 7연패와 세계여자핸드볼선수권대회 진출을 노리는 이계정호가 목표를 향해 순항하고 있다.

이계정 감독이 이끄는 한국 여자 핸드볼 국가대표팀은 지난 4일(한국 시간) 인도 뉴델리 인디라 간디 아레나에서 열린 카자흐스탄과 제20회 아시아여자핸드볼선수권대회 조별 예선 A조 2차전에서 30-20 완승을 거뒀다. 이날 승리로 이계정호는 조별 예선 2전 전승을 기록하며 A조 선두를 달렸다.

이계정호는 전반 1분19초 만에 선제 실

점했지만 약 5분 동안 차서연의 연속 득점과 이연경, 서아루의 득점이 나오며 4-1 역전에 성공했다. 13분42초에 7-7 동점을 허용했으나 약 3분 만에 정지인의 연속 득점과 이연경의 득점으로 다시 10-7 리드를 잡았다.

피벗인 송해리와 김보은을 센터백으로 투입하며 이계정 감독이 변칙 작전을 활용하자 한국은 격차를 벌렸다. 탄탄한 수비를 바탕으로 이연경과 차서연, 서아루가 고른 득점을 가동하며 13-8로 달아났다. 또 이연경과 차서연에 우월함과 송해리까지 득점에 가세하며 17-10, 7점 차로 전반을 마쳤다.

이계정호는 후반 시작과 함께 연속 실점하며 17-12로 추격을 허용했다. 하지

만 차서연의 연속 득점과 이연경의 중거리슛으로 다시 20-12로 달아났고, 윤예진의 연속 득점과 서아루의 득점까지 더해 23-13으로 두 자릿수 점수 차를 기록했다. 후반 13분10초 만에 10점 차로 벌어진 격차는 쉽게 좁혀지지 않았다. 김보은과 차서연이 득점을 올린 뒤 강은서가 3연속 득점으로 존재감을 알렸고 이혜원과 손민경도 득점에 가세하며 30-20 대승을 완성했다.

한편 이계정호는 6일 오후 7시30분 같은 장소에서 중국을 상대로 조별 예선 A조 최종전을 치른다. 3전 전승으로 A조 1위를 차지할 경우 세계여자핸드볼선수권대회 출전권을 확보하며 B조 2위와 준결승에서 맞붙는다.

한규빈 기자